Modern K Music Academy 영상수업

CHRIS MARTIN
JONNY BUCKLAND
GUY BERRYMAN
WILL CHAMPION

COLDPLAY

브리티쉬 모던락의 전설로 기록 될 밴드

Coldplay (콜드플레이 / 크리스마틴(V), 존 버클랜드(G), 가이 베리맨(B),윌 챔피언(Dr) / 2000년 7월 ~ 현재 활동 중)

콜드플레이는 1996년 크리스마틴을 주축으로 Univercity College London 동문들과 함께 결성된다. 처음 결성하던 당시에는 원래 팀 이름은 스타피쉬였다. 크리스 마틴은 같은 학교 동문인 팀 라이스 옥슬리(Tim Rice-Oxley)에게 팀의 건반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때 이미 팀은 'Keane'이라는 팀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거절했다. (훗날 Keane 또한 Everybody's chainging이라는 곡의 히트로 스타가 되었다.) 콜드플레이는 스타피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EP를 3장 정도 발매하며 활동하다 드디어 1999년 메이져 음반 레이블인 '팔로폰(Parlophone)'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처음 서게 되었다. 관객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EP를 추가로 발매하고 공중파에도 그들의 노래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룰을 정하기로 한다. U2나 R.E.M.같은 밴드들처럼 사회적인 이슈에 기여할 것, 또 하나는 어느 누구라도 마약을 하게 되면 팀에서 떠날 것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이었다.

콜드플레이는 본격적으로 1집 앨범 작업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2주 정도의 녹음일정을 잡았으나 계속되는 공연일정 때문에 8~9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3장의 EP를 발매했지만 별다른 히트곡이 없던 그들은 1집 앨범 작업기간에 나온 싱글 'Shiver', 'Yellow'가 각각 싱글챠트 Top 40과 Top 5에 랭크되었다. 드디어 2000년 7월 정식 발매된 1집 '파라슈츠(Parachutes)'는 발매하자마자 UK 앨범챠트 1위로 데뷔하게 된다. 앨범에 'Trouble' 등 다양한 곡이 사랑을 받게 되고 2000년 머큐리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기에 이른다. 이후, 그들은 미국으로 눈길을 돌려 미국에서도 같은 해 11월에 정식으로 1집 앨범을 발매하고 미국 클럽 투어를 이듬해 2월부터 시작한다. 그 해 2월 2001 Brit Awards에서 콜드플레이는 최우수 영국그룹상과 최우수 영국앨범상을 거머쥐게 된다. 이에 힘입어 판매량은 2백만장을 넘게 되고 2002년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최우수 얼터너티브 앨범상을 수상하게 된다. 콜드플레이는 앨범발매와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며 천천히 음악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했으므로 그들의 1집 'Parachute'도 다소 느린 속도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평단과 대중의 확실한 인정에 힘입어 락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전작 '파라슈츠(Parachutes)'의 성공을 뒤로 하고 콜드플레이는 2001년 9월 스튜디오로 돌아가 2집 'A Rush of Blood th the Head' 앨범작업에 들어간다. 2집 앨범 중 'In My Place'를 앨범의 리드싱글로 발매하기로 한다. 이 곡이 2집 앨범 작업에 대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집 앨범의 대성공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음악활동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던 당시에 탄생한 곡이어서 그 의미는 더 컸다. 이 곡의 탄생 이후 다른 곡들의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무곡 이상의 곡들을 작업하며 'Clocks', 'The Scientist' 등의 명곡이 탄생하였다. 2002년 8월에 이 앨범은 정식 발매되었고 이후 1년간 월드투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작은 무대의 출연자로서 참여했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드디어 공동 헤드라이너로 서게 되었다. 달라진 그들의 위상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이후, '브릿 어워즈'나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등의 무대에 서며 그들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03년에 저명한 음악잡지인 롤링스톤스는 콜드플레이를 올해의 밴드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콜드플레이의 2집 앨범은 2003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얼터너티브 음악상을 수상하고 앨범 수록곡인 'Clock'은 2004 그래미 어워즈에서 가장 저명한 상 중에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를 거머쥐게 된다.

2004년의 대부분을 각종 매체들의 집중조명 속에 보낸 콜드플레이는 이후 휴식기를 가지면 3집 앨범인 'X&Y ' 를 작업한다. 2005년에 3집을 발매하게 된다. 전작들과 달리 3집이 좀 늦게 나오게 되면서 앨범유통사인 EMI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3집이 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83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게 되고 이 앨범은 2005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3집 'X&Y'는 발매와 동시에 20개 국가의 앨범차트에서 1위로 랭크되었다. 리드싱글인 'Speed of Sound'와 'Fix You', 'Talk' 등이 히트싱글로 자리매김했고 뉴욕타임즈는 콜드플레이를 이번 10년간 가장 영향력있는 밴드로 선정한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은 이들을 이들의 우상인 U2와 함께 비교할 정도로 밴드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밴드의 인터뷰를 보면 3집을 작업하면서 이들은 본인들이 갑작스레 유명세를 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들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러한 족쇄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운드로 팬들에게 화답했다.

2006년 콜드플레이는 휴식기 겸 4번째 앨범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여행하며 연주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토속적인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 4집 앨범의 모티브를 잡게 된다. 타이틀 곡인 'Viva La Vida'가 그 방향성을 제시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들에 비교해서 더욱 넓어진 사운드의 공간감과 토속악기들의 사용, 그리고 몽환적인 느낌이 더욱 강해진 앨범으로 앨범의 타이틀인 'Viva La Vida'는 생애 처음으로 이들에게 빌보드 핫100 차트와 UK 싱글차트 1위를 선사하게 된다. 이 앨범은 2008년 한 해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고 콜드플레이는 그래미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최우수 락앨범, 최우수 보컬 팝 퍼포먼스 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 앨범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 관계자는 노래가 너무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염려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한 그들의 선택이 적중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Mylo Xyloto, Ghost Stories, A Head Full of Dreams 등의 음반을 연이어 발표하며 이들의 우상인 U2와 같이 스타디움에서만 공연을 하는 대형밴드가 되었다. 최고의 팝스타들만 선다는 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서는 등 이들은 계속해서 뮤지션으로서 자신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R&B 음악의 신조류. PBR&B = Altenative R&B
'PBR&B'는 맥주 브랜드인 'Pabst Blue Ribbon(팹스트 블루 리본/*이하 'PBR')'과 'R&B'의 합성어다. PBR은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힙스터(Hipster)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맥주이다. 'PBR&B'라 정의할 수 있는 음악은 획일적인 주류 문화나 다수가 열광하는 스타일들의 반대 지점에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독특한 것을 지향하는 '힙스터'에 빗대었고, 그 과정에서 힙스터 문화의 상징적인 매개물 중 하나인 PBR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에는 'Hipster R&B'라 부르기도 했다.
일렉트로닉, 알앤비, 록, 힙합 등이 변칙적으로 뒤섞인 'PBR&B'의 음악적 스타일을 하나의 틀 안에서 규정할 순 없지만, 대표적으로 '최소 한 번의 디지털 여과 과정을 거친 빈티지한 드럼 사운드 + (80년대의 느낌까지 아우르는) 신디사이저의 과용을 통한 감성적이고 우울한 멜로디 라인 + 앰비언트 음악처럼 사운드의 잔향을 은은하게 퍼트리는 믹싱 기법'의 결합이 특징이다.
가사 면에서는 성과 사랑은 물론, 개인의 철학과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그것을 표현하는 데 직설적이거나 과격한 표현도 개의치 않는 게 특징이다. 'The Weeknd', 'Frank Ocean', 'Miguel' 등이 대표적인 PB R&B 아티스트이다.

PBR&B 의 대명사 The Weeknd(위켄드)

The Weeknd (위켄드 / 싱어송라이터, 음악 프로듀서 / R&B, PBR&B, Neo Soul)

위켄드는 (본명: 에이블 테스페이(Abel Tesfaye), 1990년 2월 16일 생) 캐나다의 R&B 싱어송라이터이다.
에티오피아계 캐나다인인 그는 소울, 콰이엇스톰, 힙합, 펑크, 인디 록, 포스트 펑크 음악 등을 들으며 성장했다. 17세의 나이에 같은 크루 멤버와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자신의 무대이름을 "The Weeknd"라고 지었다. "The Weeknd"의 철자에 "e"가 빠진 것은 캐나다에 이미 "The Weekend"라는 이름의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고자 수정한 것이었다.

위켄드는 "The Weeknd"라 이름붙인 R&B 프로젝트를 구상해 준비하던 중 토론토에서 프로듀서 제레미 로즈를 만났다. 로즈는 위켄드의 세 곡을 프로듀싱했는데 ("What You Need", "Loft Music", "The Mornin") 자신이 프로듀싱한 트랙들을 대중에게 인정받으라는 조건하에 곡을 주었다고 한다. 2010년 11월, 위켄드는 처음 "The Weeknd"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그 곡들을 업로드 했지만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점점 입소문이 퍼졌고, 토론토 출신 래퍼 드레이크가 그 곡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 위켄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했다. 그 후 그 곡들은 피치포크 미디어와 뉴욕 타임스와 같은 곳에 보도되기도 했다.

2011년 3월, 위켄드는 그의 웹 사이트에 9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믹스테잎 "House of Ballons"를 무료로 공개했다. "House of Ballons"은 음악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2011 폴라리스 뮤직 프라이즈의 10개의 후보곡 중 하나로 오르기도 했다. 그 후 7월부터는 투어공연을 시작해 드레이크와 합동 공연을 하기도 하고, 드레이크의 공연에 특별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며 공연을 통해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갔다. 2011년 8월 18일, 위켄드의 두 번째 믹스테잎 "Thursday" 역시 그의 웹 사이트를 통해 무료 디지털 음원으로 발표되었고, 음악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1년 11월 21일에는 그의 세 번째 믹스테잎 "Echoes of Silence" 가 공개되었다. 2011년에 발표된 이 세 개의 믹스테잎은 2012년 전곡 리마스터하여 3곡의 신곡과 함께 컴필레이션 앨범 "Trilogy"로 재탄생하였다.
2012년 9월, 위켄드는 'Republic'(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 음반사)와 계약하면서 그의 크루인 XO와 합작 투자를 약속했다. "Trilogy"는 캐나디안 앨범 차트에서 5위, U.S 빌보드 200에서 4위로 랭크되었다. 2013년 5월에 "Trilogy"는 미국 음반 산업 협회와 뮤직 캐나다의 플래티넘 디스크 상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13년 스튜디오 데뷔 앨범인 "Kiss Land" 와 "Live For" 를 발표하고 활발한 투어공연으로 프로모션을 펼쳤다.

2014년 9월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한 "Love Me Harder"가 발표되어 빌보드 핫 100에서 7위를 기록했고, 11월에는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삽입곡 "Earned It"을 발표해 빌보드 핫 100의 3위를 차지했다.
연이어 2015년에는 싱글 "The Hills"와 "Can't Feel My Face"를 발매했다. "Can't Feel My Face"는 위켄드가 미국에서 첫 1위를 차지하게 해준 곡이다. 2015년 7월 마지막 주 빌보드 핫 R&B 차트에서는 위켄드의 "Can't Feel My Face"가 1위, "The Hills"가 2위, "Earned It"이 3위에 랭크되면서, 그는 빌보드 차트의 1,2,3위를 모두 휩쓴 역사상 첫 번째 아티스트가 되었다.
2015년 8월 28일 위켄드의 두 번째 정규 앨범 'Beauty Behind the Madness'가 공개되었고,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했으며 처음 몇 주 간 412,000장에 달하는 앨범 판매고를 달성했다.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1989'이후로 3주 연속 빌보드 200의 1위를 기록한 첫 앨범이었다.
그 후 2016년 정규 3집 앨범 "Starboy" 와 2018년 그의 데뷔 이래 첫 EP앨범인 "My Dear Melancholy" 역시 발표하자마자 큰 주목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떠오르는 여성 PBR&B 대표주자 Jhene Aiko(즈네 아이코)

Jhene Aiko (즈네 아이코 / 싱어송라이터 / R&B, PBR&B, Neo Soul, Hip Hop)

즈네 아이코는 (1988년 3월 16일 생) 미국의 R&B 싱어송라이터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여동생은 R&B 가수 Mila J 이다. 어머니가 스페인, 일본 계 도미니카인 이다.
즈네의 첫 음악 커리어의 시작은 2002년 R&B 그룹 B2K의 몇몇 곡에 피처링을 한 것이었다. B2K의 래퍼 Lil 'Fizz의 사촌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유명세를 타게 되었지만 실제로 둘은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후에 이 소문은 소니 뮤직과 에픽 레코드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퍼트린 루머로 밝혀졌다.

2003년 즈네는 Sony(소니 뮤직), The Ultimate Group(더 얼티메이트 그룹), Epic(에픽) 레코드를 통해 데뷔 앨범 “My Name Is Jhené”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에픽 레코드의 사정으로 불발되었고, 즈네는 이 일을 계기로 에픽 레코드를 떠나 학업에 몰두한다.

2007년부터 다시 음악을 시작한 그녀는 2011년 3월,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Miguel(미구엘), Drake(드레이크), Kanye West(카니예 웨스트) 와 콜라보레이션 한 믹스테잎 “Sailing Soul"을 발표했다. ”July"를 제외한 믹스테잎에 있는 모든 곡은 직접 작곡했다.
이후 2012년 Def Jam(데프 잼 레코드)을 통해 ARTium(아티움)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된 즈네는 본격적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시작한다. 2012년 9월, 2013년에 발매할 EP앨범의 싱글 “3:16 AM"을 발표한 후 2013년 11월 데뷔 EP앨범 “Sail Out"을 정식 발매하였고, 이 앨범은 1주간 3만 4천장 판매되며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8위로 데뷔하였다.
2014년 1월 이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발매된 ”The Worst"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43위를 기록한 즈네 아이코의 첫 번째 차트인 곡으로, US Hot R&B/Hip-Hop Songs 차트에서는 11위를 기록하고 2014년 BET Award 에서 'Centric Award'를 수상, 2015 Grammy Awards 에서는 ‘Best R&B Song‘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히트했다.
2014년 9월~10월 미국 전역에서 펼쳐진 가수 위켄드의 투어 공연에 함께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8일 드디어 첫 데뷔 정규 앨범 “Souled Out"이 발매된다. 이 앨범은 발매 첫 주에 7만장이 팔려 미국 빌보드 200에서 3위로 데뷔하였다. 이 앨범에서 ”The Pressure", "Wading", "Spotless Mind" 3 장의 싱글이 발매되었고, 이 싱글들 역시 차트에서 선방하였다.
2015년 57회 Grammy Awards에서 즈네는 Best R&B Song 부문에 "The Worst"가, Best Urban Contemporary Album 부문에는 EP앨범 “Sail Out”가 노미네이트 되는 등 총 3 부문에 이름이 올랐다.

2016년 3월에는 래퍼 Big Sean(빅 션)과 함께 "Twenty88"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했고, 이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5위를 기록했다. 이 협업을 계기로 둘은 연인이 되기도 했다.
2016년 6월,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While We're Young“을 리드싱글로 발표하고 2017년 9월, 정규 2집 “Trip”이 발표되었다. “Trip"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5위로 데뷔하면서 그녀는 4년 연속 Top 10 진입에 성공하였다. 또 이 앨범은 미국 Top R&B/Hip-Hop Albums 차트에서도 4위로 데뷔했다.
2018년에는 “Trip”의 수록곡 “Sativa"를 피처링 아티스트의 교체와 함께 새로운 버전으로 싱글 발매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즈네 아이코는 보컬적인 면에서 가수 Brandy(브랜디)와 Beyonce(비욘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